시민 주도 '안전 광주 만들기' 나섰다

3대 사망사고 줄이기본부 발족
370명 신청 시민실천단 30일 발족
사고 예방 ·빗물받이 관리함 설치

광주시가 재난·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시민 참여와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시 안전 정책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등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지원단, 분야별 예방 활동과 시민의식 개선을 주도할 시민실천단 등을 구성한다. 시민 공모 방식으로 370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오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민실천단은 6월부터 분야별 주관부서와 함께 ▲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 모니터 ▲자살예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 활동 ▲산재 취약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마을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조사, 분석, 해결 방안 모색, 개선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주도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안전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의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 2곳을 시범 선정해 마을당 5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도심 침수 피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사업도 시민과 함께 한다. 시는 집게, 장화, 장갑 등 정비용품을 넣어두는 도구함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폭우 속에서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맨손으로 청소하는 시민 모습을 보고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24곳에 여름 호우가 시작되기 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살피는 안전감찰 중점 과제도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관리실태 등을 순차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노후·고위험시설 집중 안전점검에도 시민관찰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시민에게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방법과 안전신문고앱 사용법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안전 주체의 노력에 따라 도시 안전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시민의 절대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올해 시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내년 사업 규모도 더욱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광주시 LH송화마을8단지에서 열린 '효사랑 나눔행사'에서 어린이들과 청년세대 거주민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있다.

가정의 달 맞아 훈훈한 효사랑 나눔 행사

광주시 LH송화마을8단지
어르신·청년·어린이 친목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년 세대, 어린이들이 함께 모인 '효사랑 나눔 행사'가 열려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광주시 LH송화마을8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는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아파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 행복주택 청년세대, 어린이들과 함께 지난 8일 단지 내 쉼터에서 '효사랑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입주 4년차를 맞은 행복주택 내 독거 노인 세대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어르신과 청년, 이웃세대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미란 LH송화마을8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직접 대면 소통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하고 친숙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주 어르신과 청년 세대,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친목 행사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 클라우드·AI기술 융합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업무협약
AI기업 정부 지원·투자 활성화

광주시가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클라우드, 데이터, AI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삼성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AI+X' 구현 및 AI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AI+X'란 기존 산업을 클라우드, 데이터, AI 기술 융합 기반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개념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준하 AI사업단장, 김형수 AI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김외철 상근부회장, 김건훈 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AI 관련 기업 간 다양한 사업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및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약 세부 내용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실증 등 인프라 지원, 신규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계 협력,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인공지능협회 소속 AI 기업들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된 AI 데이터센터 등 AI 사업단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고, AI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1000여 개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 기업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역 AI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한국인공지능협회에 소속된 1000여 개의 AI 기업과 광주지역 AI 기업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부 지원 사업 및 투자를 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상수도본부 먹는물 분석 국제인증

미국 ERA 평가 전 항목 '적합'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먹는 물 분야 숙련도 시험과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에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먹는물 분야 숙련도 시험'은 전국 80개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 능력 향상과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국제표준화 기구(ISO/IEC)가 인정한 숙련도 평가기관인 미국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가 시행하며 매년 전 세계 분석기관이 참여해 측정분석기관의 분야별 분석 능력을 검증받는 국제인증 프로그램이다.

평가는 먹는물 분야로 이온류 4개 항목, 소독부산물 3개 항목, 농약류 2개 항목, 중금속 5개 항목, 미생물 4개 항목, 유·무기항목 3개 항목 등 7개 분야 총 21개 항목이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I 전문가 꿈꾸는 고교생들 광주로 모여라"

6월 AI 집적단지 견학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전문가를 꿈꾸는 전국 AI 중심 고등학생을 위한 AI 집적단지 견학 프로그램이 광주에서 6월 한 달간 진행된다.

전 세계 10위권 규모의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I 창업캠프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광주 AI 산업 생태계를 알리고 AI 인재를 유입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한 광주 홍보와 광주 시티투어 가이드를 지원하는 등 광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4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이하 AI 집적단지) 내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AI 창업캠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지역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인공지능 교육선도학교(고등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월 오후 3~6시 놀이시설 사고 주의하세요

최근 5년 안전사고 20% 5월 집중

광주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은 놀이시설, 자전거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생활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광주지역 어린이 및 유원지 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 중 19%(총 37건 중 7건)는 5월에 발생했다. 특히 2020~2021년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57.1%)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이용 시 끈이 달린 옷이나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장난감 등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놀이기구별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영유아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